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4. 1. 11.(목) 07:00 ~ 22:00
- 상담건수¹⁾: 1,192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진행자 호평

-프로그램명 : 「사사건건」

-방송일시 : 1TV (월-금) (16:00-17:00)

진행자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잘 하는 것 같다. 진행자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. 이번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서 보기 좋다.

○ 보도 제언(182명)

-프로그램명 : 「KBS 뉴스 7」 “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’ 휴스텍코리아 대표 기소’

-방송일시 : 2024. 1. 10.(수) 1TV (19:00-19:40)

휴스텍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.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,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.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6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192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546	27	-	-	619	1,192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700	399	6	-	-	87	1,192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425	767	-	1,192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1,057	1	70	64	1,192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사건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행자 호평 ○ 「KBS 뉴스 7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 제언 ○ 「KBS 뉴스 9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일꾼의 탄생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청자 참여 제언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옥탑방의 문제아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제언 <p>【드라마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일연속극 「우당탕탕 패밀리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극본 제언 ○ 일일드라마 「우아한 제국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극본 제언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 7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보도 불만’ 168건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한과’ 연락처 문의 70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동태전골’ 연락처 문의 32건 ○ 「KBS 뉴스광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보도 불만’ 21건 ○ 「아침마당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티벳 퀴즈 참여’ 문의 16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27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25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7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7건 ○ 「전학」 문의 2건 외 2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64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보 도]	
진행자 호평	<p>○ 「사사건건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TV (월-금) (16:00-17:00)- 진행자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잘 하는 것 같다. 진행자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. 이번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서 보기 좋다. <p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보도 제언	<p>○ 「KBS 뉴스 7」 “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’ 휴스탬코리아 대표 기소’(18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2024. 1. 10.(수) 1TV (19:00-19:40)- 휴스탬코리아 대표 등 경영진이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. 본인은 그 회사 소속으로, 본인을 포함한 많은 가맹점들이 소득을 얻었다. 보도로 인해 점주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회사 측 입장도 상세히 알아본 후 중립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. <p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<p>보도 제언</p>	<p>○ 「KBS 뉴스 9」 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0.(수) 1TV (21:00-22:00) -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했는데, 다른 뉴스들에 밀려 너무 뒷부분에 다뤄졌다. 그렇다고 그 이전의 뉴스들이 크게 중요한 사안이거나 이슈가 아니었다. 우리나라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고, 치료 후 퇴원을 하는 만큼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<p>[시사 · 교양]</p>	
<p>시청자 참여 제언</p>	<p>○ 「일꾼의 탄생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(수) (19:40-20:30) -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이며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.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시청자들은 참여가 힘들다. 전화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<p>[연예 · 오락]</p>	
<p>방송 제언</p>	<p>○ 「옥탑방의 문제아들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0.(수) 2TV (20:30-21:45) - 방송 초창기부터 시청했는데, 몰랐던 상식을 많이 알게 되어 즐겨 봤다.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제풀이는 뒷전이고 토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. 일상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좋았는데,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속상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[드라마]	
극본 제언	<p>○ 일일연속극 「우당탕탕 패밀리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0.(수) 1TV (20:30-21:00) - 심정애(최수린 분)가 강선우(이도겸 분)·유은성(남상지 분) 커플을 지나치게 반대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. 현재 강선우·유은성으로 인해 양쪽 집안이 축대밭이 되었는데, 부모가 자식의 일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. 일일연속극임을 감안하여 제작진이 조금 더 가족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	<p>○ 일일드라마 「우아한 제국」 (5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0.(수) 2TV (19:50-20:30) - 시청하다가 답답함을 느꼈다. 모범적인 KBS에서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제작하다니 원망스러울 정도다. 극중 젊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. 기정 중요한 저녁 시간대 방송인데 지나치게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